

지역 매아리

정읍 도시재생 소식지 창간호 발간

정읍시의 도시재생 관련 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창간됐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의 정보를 담은 도시재생 소식지인 '정읍! 다시 태어나다'가 발간됐다.

제호인 '정읍! 다시 태어나다'는 지난 8월 주민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이와 관련 시는 "제호인 '정읍! 다시 태어나다'는 정읍시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타블로이드 8면으로, 앞으로 상·하반기 2차례 발간될 예정이다.

주요 배부처는 원도심과 관련 기관·단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다.

창간호에는 새안로 등 중심지 5개 거리 상가 회장의 창간축하 메시지와 정철모(전주대교수) 정읍시 도시재생센터장의 정읍시 도시재생 추진 방안 등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있다.

또한 12명의 시민기자들이 바라는 정읍의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을 비롯 도시재생 관련 생생한 정보와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대상 예비지구 최종 선정

정읍시, 내년도 기초생활거점지구 2개지구·마을만들기 3개 마을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비 공모대상 예비지구로 대한 자체 평가를 갖고 최종 예비지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과 마을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접수 결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입양면과 칠보면이 신청했고, 마을만들기에는 북면 평촌마을, 소성면 모촌과 보화마을, 영원면 신기마을, 칠보면 원반마을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지역 약 100여명의 추진위원과 주민,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주도로 작성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심사 등 자체 심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거점지구로 입양면과 칠보면 2개 지구를, 마을만들기

에는 북면 평촌과 소성 모촌, 영원 신기마을 모두 3개 마을을 최종 예비지구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최종 선정지구와 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전라북도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게 된다.

시는 자체 선정된 최종 예비지구들이 내년도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주민과 컨설팅, 행정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실시와 지역 개발 전문가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공모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의 아메니티(amenity)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활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읍·면 소재지 중심지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40억 이내)과 마을의 역량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5억 이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 70%를 투입해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정부시책이다"며 "그간 정읍에서는 21지구가 선정돼 640여명이 투입됐고, 시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정읍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상서 출신 김정민·정기 형제 나누미근농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안 상서 출신 김정민·정기 형제가 부친을 기리며 조성한 장학금 1000만 원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재단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정민·정기 형제는 "교육자이신 아버지가 김규성씨를 기리며 아버지의 호를 딴 '성원장학금'을 조성하기로 결심하고 형제가 함께 수년간 장학금을 조성해 왔다"며 "부안의 청소년들이 학비걱정 없이 희망을 꿈꾸고 더 밝게 커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데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형제는 두 살 터울로 형 김정민씨는 대전 소재 광반도체 전문 제조업체인 레이프론을 운영하고 있다.

레이프론은 25년 이상 광반도체 분야에 집중해 최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철탄산업진흥상을 수훈한 유망벤처기업으로 매출액이 400억 원대에 달한다.

동생 김정민씨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상서면 동림마을 이장을 맡는 등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나누미근농장재단 김종규 이사장은 "자수성가한 형제가 부친을 기리면서 만든 소중한 장학금은 그 자체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며 "귀한 뜻 잊지 않고 부안의 아이들이 맘껏 꿈꾸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생활개선회 종합평가 성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생활개선회 종합평가회가 1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0여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생활개선회원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일하는 틈틈이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고 선도적인 영농을 실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열정적인 학습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욱이 부안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 원광대학교 심 뇌혈관질환센터 오경재 교수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뇌졸중, 뇌경색 등의 증상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들어가며 건강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군의 대표 학습단체로서 내용 있는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춘순 부안군 생활개선회장은 "부안군 생활개선회가 내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탄실한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내년에는 회원 확대와 더불어 기금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AI 차단방역 지속 추진

전국 최초 이동식 터널형 소독시설 설치 운영

고창군은 지난 11월 19일 고병원소독시설 AI가 발생 후 초동 및 차단방역에 전력투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산 없이 4주차를 맞이하고 있다.

고창군은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한 대처와 차단방역을 지속하고 있다. 군은 거점소독장소에 기존 U자형 소독기가 바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소독약이 비산되어 소독효과 저하와 환경오염우려가 있고, 동절기 소독기 동파와 노면결빙 등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 하고자 지역 내 거점소독장소인 고인돌 휴게소와 선운산IC 입구에 전국최초로 이동식 터널형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현재 철새도래지 통제 등을

포함해 거점소독시설(3개소), 이동통제소(6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협공동방재단, 군부대독차, 흥덕면 자율방재단과 방제차 전문제조업체의 광역방제기를 협조 받아 철새도래지와 방역대상지역에 대한 소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한 터널형 소독시설의 도입을 통해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차단 방역에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펼쳐

정읍시의회의는 지난 11일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다채롭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도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자유발전과 시정질문으로 제안한 정책을 얼마나 수용하였는지에 대한 대의회 소통과 협력분야 7개 항목, 2018년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될 복지사업의 총량 등 민간 복지시설과 파트너십 및 지원계획에 관한 복지행정 관련 3개 항목, 금봉동 재해위험지구 환경개선 사업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

해 질문했다.

김철수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읍시의 대책,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에 대한 대책,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대책,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남녀의 균등한 참여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읍시의 대책 등 인구증대와 관련한 정읍시의 노력과 관련 총 8개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조상중 의원은 역사 문화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

업내용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 관련 5개 항목, 원불교 진입로 넓은 주택 해소 방안, 교통시설 분야로 버스승강장 현황 6개 항목,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설치된 화장실은 몇 개이고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은 몇 개인지 물었다.

이번 정례회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산물 온라인 입점·판매활성화 전략은?

유기상 고창미래전략연구소 농업인들 대상 특강 유 소장 "행정에서 이끄는 유통사업단 역할 총살"

유기상 고창미래전략연구소가 고창 지역 식품업체 관계자,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온라인 입점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지난 11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입점 및 판매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는 (주)이베코리아 담당자, 전북무정청 달팽이장터 팀장, 전북경계특성상진흥원 국내마케팅 팀장이 함께해 온라인 불 입점 및 판매 전략, 제품별 키워드 분석 뿐만 아니라 판매 품목별 솔루션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유기상 고창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은 "농생명산업은 우리 고창의 근간 산업이며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은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행정에서 이끄는 농산물 유통 사업단 역할을 충실히 해서 농민, 가공업체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유 소장은 "이번 온라인 판매 활성화 강의를 통해 우리 고창 농작물, 가공식품이 6차산업에서 문화까지 접목시킨 10차산업으로 확장이 되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아 국내외 식탁에 오르기를 바란다. 유용한 정보가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픈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